

구원으로서의 귀향과 父權 회복의 의미

-全商國의 作品論-

趙 東 淑*

차례

I. 머리말

II. 여름 난리와 作品 속의 아버지들 행태

III. 귀향 의지와 父權 회복의 의미

IV. 맺는 말

I. 머리말

전상국은 우리 소설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작가로서 이미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정평 있는 문학상은 두루 수상했던 점¹⁾에서나, 일시적인 흥행성보다는 꾸준한 정진으로 작품 활동에 임하는 자세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상국은 경희대 재학중인 1963년에 단편 「동행」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가로서 출발했다. 그러나 그 작품의 명성에 걸맞는 후속 작품을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전상국은 1977년 「사형」, 「껍데기 벗기」로 제 22회 현대문학상 수상, 1979년 「아베의 가족」으로 제 6회 한국 문학상 수상, 1980년 「아베의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상, 「우리들의 날개」로 제 14회 동인 문학상 수상, 1988년 「투석」으로 윤동주 문학상 수상, 1990년 「사이코 시대」로 제 1회 김유정 문학상, 강원도 문학상을 수상.

창작하지 못한 점 등으로 약 10여년의 공백기를 가지다가 「동행」에서 제기한 분단과 우리의 역사에 대한 문제에 자신의 문학적 무게를 실음으로써 그의 작가로서의 표류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그의 소설적 모티브는 어릴 적에 그가 자란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체험한 “여름 난리”의 무서운 현장과 “危害의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된다. 유년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들어야 했던 비극의 역사는 바로 가족의 뿌리를 끊으려 하다가 결국 그 뿌리로 귀환하는 작중 인물들처럼 집요하고 줄기차게 우리의 삶에 유형무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이 작가의 관심은 훼손된 민족의 혈맥을 치유하고 복원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있으며, 귀향의 의지는 민족과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로 보인다.

그는 그의 작가적 성공을 한 우물 파기에 두는 듯 6.25소재에 거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미 출판된 7권의 작품집인 「바람난 마을」(1977), 「하늘 아래 그 자리」(1979), 「눈에서는 바람이」(1980), 「외동」(1980), 「우리들의 날개」(1981), 「길」(1985), 「형벌의 집」(1987)이 충분한 증명을 해 준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동행」, 「맥」, 「하늘 아래 그 자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작중 인물의 귀향과 부권회복의 의미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즉 그들은 왜 귀향했으며, 귀향 후 무엇을 했던가에 초점을 맞추어 봄으로써 연구의 핵심에 접근할 것이다.

Ⅱ. 여름 난리와 작품 속의 아버지들 행태

전상국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급 논설이나 시대 이념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경지에는 못 미치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무지렁이들이 벌이는 시대착오적인 가해와 피해의 악순환이 그 자식들에게까지 넘겨져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유형무형의 고통과 아픔”²⁾을 형상화하고 있다.

2) 전상국, 아버지, 그에 연관된 귀소의지의 천착, 「열 한 권의 창작 노트」, 도서출판 창, 1991, p.85.

첫째, 「동행」에서의 부친은 아들 최억구가 6.25때 부역했던 사실 때문에 죽창에 찔려 살해된다. 부친은 늘 억구에게 장가가길 원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들 부자에게 제대로 된 삶을 허락할 리가 없다.

“난 기어코 득술 죽이고야 만 겁니다. 거 왜 사변 때 말입니다. 파리새끼
찍이듯 사람 막 찍일 때 말이죠.

.....중 략.....

여하튼 난 득술 죽이고야 말았다 - 이겁니다. 허나 그 뿐인 줄 아슈? 육친을, 즉 제 애비까지 잡아먹은 게 바로 나요. 이 최억구라는 인간입네다.”

결국 이용당했던 것이다. 어릴 적부터 동네의 천더기로 따돌림당하던 자기를 빨갱이들이 용하게 이용했던 것이다.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이니 하는 감투를 떠억 씌워서. 그래 결국 자기 부친까지 참사를 당하게 하고 만 것이었다.³⁾

“그날 밤, 난 집을 빠져 나와 뒷산으로 치뛰며 아버님의 비명을 들었수다. 득수 동생 놈이, 잡았다! 하고 소릴 치더군요. 잡았다, 하고 말입네다. 그래도 이 놈은 살겠다고 정갱이까지 빠져드는 눈길을 맨발로 달아나고 있었죠.”⁴⁾

억구의 부친은 빨갱이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얻은 감투로 파리새끼 죽이듯 사람을 막 죽였던 아들 때문에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복 살해되는 국면을 맞는다. 이런 보복의 악순환이 작중 인물들이 이해했던 6. 25인 것이다. 또한 억구의 아버지는 아내도 없다. 첫 아내의 이야기는 작품 속에 언급이 없고, 둘째 부인(억구의 계모)도 달아나 버린 결손 가정이다. 「동행」의 주인공인 최억구는 부친을 잃은 채 고향을 떠나야만 된다.

둘째, 「맥(脈)」의 아버지 최만배는 김씨 문중이 자신들의 최씨 집안을 동계(洞契)에서 제명했다는 이유로 김구장의 딸을 삼발로 납치한 후 강간하고 1년동안 징역살이한다.

그것도 부족했던지 해방이 될 때는 김씨 문중을 친일파로 몰았고, 여름 난리 때는 인민위원회 풍암리 위원장 감투를 쓰고 마을을 설치고 다녔던 사람이다. 6.25부역 후 국군이 수복되자 다시 5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3) 전상국, 동행, 「우상의 눈물 外」, 동아출판사, 1995, p.26.

4) 전상국, 위의책, p.27.

바편 세상에, 풍암리 일대는 온통 아버지의 것이었다. 성분 좋겠다, 내력 깊겠다. 아버지는 떠억 인민위원회 풍암리 위원장 감투를 썼다. 아버지는 진정 살맛이 났다. 불량스런 눈을 해 가지고 마을을 설쳤다. 읍 내무서원을 하나 데려다 마을 반동분자를 잡는다며 닷새씩이나 마을을 발각 뒤집었다. 빨갱이 지시라면 잘도 해냈다. 네 부모를 죽여라 했어도 그것을 해냈을 만큼 아버지는 악랄해져 있었다. 몸 망치고 끌려와 억지 결혼을 한 내 이복누님들의 생모는 딸 둘만 낳은 채 기죽어 살고 있다가 남편이 빨갱이 앞잡이가 되어 날뛴자 시부모와 함께 남편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다 여러 번 발길에 차여 넘어졌다.⁵⁾

「맥」의 아버지는 자신의 몇몇하지 못한 과거지사나 고향 얘기를 일체 하는 법이 없었고, 그 때문에 작중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의 결코 몇몇할 수 없는 지난 그늘로 하여, 그 그늘 속에 스멀거리고 있는 죄의 잔뿌리에 감겨 심통이 사나운 아이, 꺾배기처럼 배배꼬인 이십 성년으로 컸던”⁶⁾ 사람이다.

이렇듯 최만배에게 6.25는 천더기인 자기를 천대하던 사람에게 복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중오와 복수의 악순환만 가중시킬 뿐 그에게는 그 외의 문제는 관심 밖이 된다.

바편 세상에서 “아버지”는 과거의 원한에 대한 복수심으로 날뛰었던, 시대착오적인 백치에 다름 아니다. 김병익의 지적처럼 이렇게 복수의 칼날만 휘두르는 한 그는 여전히 역사와 사회의 천더기⁷⁾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하늘 아래 그 자리」의 아버지는 마필구라는 산지기다. 대대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려오던 상암리와 하암리는 빈부귀천과 상놈 양반이 서로 대립하던 곳이다. 육손이 마필구는 상암리 출신이지만 하암리의 과수택 딸과 결혼하여 신분적 상승을 가져왔고 하암리 김씨 문중의 선산 은장봉을 지키게 되어 충실한 산지기 노릇을 하게 되었지만, 김씨 문중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상암리 사람들의 원수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하암리에서도 쫓겨나게 되는데 여름 난리를 맞게 된다. 아래의 소설 대목은 이리저리 소외된 자신의 보상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5) 전상국, 脈, 『偶像의 눈물』, 민음사, 1980, p. 236.

6) 전상국, 위의 책, p.226.

7) 김병익, 혼란과 허위 - 광기의 한 양상, <문학과 지성>, '78, 여름, p. 561.

솔직히 말해 난리가 난 그해 여름 그가 우촌면에서 다시 하암리로 올라간 것은 한 번 여보란 듯이 빠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다. 실상 그는 금의 환향하는 심정이 되어 아내와 아직 당나귀 기침을 앓고 있는 아들을 끌고 하암리로 올라갔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 한 편에는 어린 시절 닭 세 마리를 들고 터벌터벌 하암리로 내려가던 그때의 심정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구원받은 느낌이었다. 매일 술에 취해 망나니처럼 우촌면 장거리를 싸다니던 그에게 그 여름 난리는 새로운 세계의 열림이었기 때문이다.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이 그를 불러냈다.

..... 중 략

그는 감투를 썼다. 하암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겸 우촌면 내무서 하암리 연락원이 되어 그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하암리를 향했던 것이다. 그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면서도 기죽은 얼굴을 했다.

「눈이 있으면 봤을 거 아니여. 옛날에 웬수진 놈 찾아 개 패듯 패 죽여두 죄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여.」⁸⁾

이렇듯 구원받은 듯한 여름 난리는 그에게 화려한 감투를 쓰게 했고, “옛날에 웬수진 놈 찾아” 잔인하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은 수복 후에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하다 감형되어 18년간의 옥고를 치뤄야 했다.

이 작품에서도 죄의 댓가로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의 삶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또한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의 가정은 심히 손상된다. 아버지의 위신 손상은 바로 어머니의 정조 유린으로 연결되는 것이 전상국 작품의 한 특징이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느 날 새벽인가 마을 사람들이 감두리 벼텅에서 육손이 처를 발견하지 않았잖나. 뿔거벗은 몸뚱이 위에 미군 담요가 하나 덮여 있었구 또 그 옆에 미군 놈들이 던져 준 강통이 서너개 있었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이가 밤중이면 먹을 걸 찾아 감두리 미군 부대 주변을 헤맸던 모양이야. 미군들이 쓰는 쓰레기장에서 뒀가 뒤적이다가 껌둥이들한테 당한 거지 뭐잖나.⁹⁾

전상국 작품에서 남편들의 부재 후에 그들의 아내들이 당하는 난행들은 폭력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되는 장면들이다. 「아베의 가족」에서는 고부간에 같이 혹은 병사 여럿에게 윤간 당하고, 「여름의 껌질」의 영채 어머니와 딸 영분이, 「고려장」의 현세 어머니도 난행당하면서 그들의 삶은 거의 치유가 불가능

8) 전상국, 「하늘 아래 그 자리」, 문학과 지성사, 1979, pp.265~267.

9) 전상국, 위의 책, p.283.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전상국의 작품에서 아버지는 “하나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힘”¹⁰⁾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의 문학적 성격은 “고향 상실 시대의 부계 문학”¹¹⁾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세 작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 속의 아버지들은 여름 난리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난리 후에는 살해되거나 감방신세를 짐으로써 고향을 떠나게 된다. 6. 25는 그들에게 입장의 반전(反轉)을 잠시 허용했을 뿐 이 세계가 혼란스럽다는 사실의 확인외엔 특별한 의미부여를 못하고 있다.¹²⁾ 다시 말하면 삶의 뿌리가 뽑히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되며 부권을 상실되고 가정은 파괴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일시적 물리적 파괴만을 가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지배하며 나아가서는 그가 관계 맺고 있는 전 가족의 운명을 결정한다”¹³⁾고 볼 수 있다.

Ⅲ. 귀향 의지와 부권 회복의 의미

전상국이 형상화한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거의가 천덕구러기로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았고 “그 종자도 악종”이었다. 가문도 비천하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그들에게 여름 난리인 6.25는 “웬수 갚는일”로 인식된다.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랬듯이 작중 인물들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 때문이 아니라 억눌린 자들이 해묵은 원한을 보복하는 기회였을 뿐이다. 전상국은 식상할 정도로 이 문제에 착근하고 있는 작가로 거의 모든 작품들이 서로 닮은꼴이 된다. 다시 말하면 고향에서 소외되었던 그들에게 6.25는 붉은 완장을 팔에 두르게 했고 거기에 걸맞는 인민위원장이라는 칭호까지 주어 그동안 눈에 거슬렸던 사람들을 “파라새끼 꺾이듯” 하고, “개 패듯 패 죽여두” 죄가 되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을 철저히 묘사함으로써 한국 전쟁에 대한

10) 전상국, 아버지, 그에 연관된 귀소 의지의 천착, 위의 책 p.84.

11) 김윤식, 부성 원리의 형식, 『우리 소설과의 만남』민음사, 1986, p.287.

12) 김병익, 혼란과 허위 - 광기의 한 양상, 위의 책, p. 561. 참고 바람.

13) 송재영, 해설 · 全商國의 小說世界, 『외동』, 고려원, 1980 p. 130.

작가의 의도¹⁴⁾를 드러내고 있다. 작중 주인공들은 그들이 고향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조상 대대로 뿌리 내렸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으며, 그런 죄의식은 감옥이나 타향에서는 더욱 덧날 뿐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고향은 해한과 화해의 공간이 되며, 그들은 강한 이끌림 때문에 귀향하는 것이다.

1) 「동행」의 경우

최억구는 6.25때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죄를 짓고 고향에서 달아났다가 후일 춘천에서 아버지의 원수인 득철이를 살해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묘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다. 「동행」은 여로형 소설로서 자신의 고향이며 조상의 산소가 있는 와야리를 향해 눈오는 밤길을 형사와 동행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는 고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최억구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태도와 고향에 대한 그의 태도는 매우 대조적인데 그 대조적인 면을 살펴보자.

“앵? 최억구라구? 분명 억구랬다! 아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이 있나? 와야릴 제 발루 ……”¹⁵⁾

“와야리 사람들은 만나겠느냐구요? 분명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다? 만나겠느냐구 — 흥, 만-나-겠-느냐구!”

“선생, 그래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 할 건 뭐유? 난 와야리서 낳구, 거기서 뼈가 굼었구, 가친이 제서 돌아가시구, 게다가 나두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못 만난단 말이유?”¹⁶⁾

14) 전상국, 아버지, 그에 관련한 귀소의지의 천착, 위의책, p.85.

그의 역사인식은 그들 고통받는 삶 자체가 역사라고 생각하며, 어제의 상흔을 아직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숨쉬는 역사를 진맥할 수 있다고 한다.

15) 전상국, 동행 「우상의 눈물 外」, 동아출판사, 1995, p.18.

16) 전상국, 위의책, p.28.

최억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고향에서 도망쳤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귀향의 태도는 뒤흔다. 죄를 지어 피해 다니는 사람의 움추린 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며 선친의 무덤이 있는 고향으로의 복귀는 매우 당당해 보인다. 그동안 뿌리 뽑힌 자가 되어 쫓기고 도망 다니다가 뿌리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옴으로서 자아 회복의 계기는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잘려진 잔뿌리를 모아 원뿌리에 연결시킴으로써 표류하던 자아는 조상과 아버지께로 정착된다. 작가도 밝혔듯이 자아와 현실을 만나는 각각의 순간에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은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확인이며 자신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쫓겨다니던 주인공 최억구는 고향에 돌아와 자신의 과거와 조상을 정면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잃어버린 부권은 회복되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과거의 죄과를 씻어내고 가족의 질서 속에 자신을 존재하게 한다. 고향은 자기 삶의 근원이며 가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바루 저 산에 가친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의 눈을 쳐드려야죠. 그리구 술을 한잔 올릴 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두 눈이 펴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루 봐선 내년두 분명 풍년이겠단만 …… 하실 겁니다. 그리고 꼭 한숨을 몰아쉬겠쎄. 그 한숨 소릴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쎄.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¹⁷⁾

그런데 동행하던 형사는 득철이를 살해했다는 최억구의 고백을 듣고서도 체포를 유보하며, 담배 열 여덟 개피를 주면서 하루에 꼭 한 개씩만 피우라고 권한다. 범인에 대한 형사의 배려는 분단과 우리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법¹⁸⁾을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17) 전상국, 위의 책 p.34.

18) 김인환, 주제와 변형, 「우상의 눈물」, 민음사, 1980, p.295.

그는 이러한 동정을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보았다.

신재성, 한국 사회의 병폐와 소설적 대응 「우상의 눈물 外」, 동아출판사, 1995, p.516.

그는 분단 현실에 대한 고통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2) 「맥」의 경우

「맥」의 주인공인 진호의 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증조부는 동학군에 내통했다가 거적 송장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증조부의 이력 때문에 역적의 자식으로 동네의 천덕궁이었으며, 아버지는 김구장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딸을 강간한 뒤 업고 나와 그의 처로 삼았다. 또 6.25때는 불량한 눈을 해가면서 마을을 뒤엎었던 장본인으로서 수복 후에는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본처가 사망하자 한 감방의 동료 부인인 일본여자를 후처로 맞아 들이는데 작품이 복합 구성법을 띄고 있다. 「맥」의 주인공의 아버지도 과거의 죄과 때문에 그동안 귀향을 망설이다가 아내(후처)의 유해를 안고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귀향 후에 제일 먼저 벌이는 작업이 성묘다. 이것은 뿌리찾기의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손상된 삶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역사로부터 소외당한 뿌리 뽑힌 사람들의 生命力の 부활”¹⁹⁾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주인공의 아버지는 귀향하면서 떳떳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은 별 거부감 없이 부자를 받아들인다.

찾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립문에서부터 대단한 헛기침을 했고, 방문 앞에 이르러선, 이거 내가 오래 살고 불라니까 이런 식으로 허두를 잡아 문을 열어 젖힌곤 입을 따악 벌려

「자알 왔네, 자알 왔어!」

「아암, 잘 오잖구! 수구초심이라는데 제삿것이 안오고 전더?」 그러나 아버지는 버스 속에서처럼 그렇게 허튼 소리로 받아 넘기지 않았다. 아주 정중히 그들과 맞절을 하고, 손을 잡아 흔들고, 그리고 거짓말같이 눈물을 주르르 쏟으면서 목멘 소릴 했다.

『너두 인살 울려야지!』

..... 중 략

묘하게도 그네들은 내 절을 받으면서 도리어 황송해 하는 그런 몸짓들을 취했다.

『보게나, 자네가 오늘 여기 나타난 것두 다 이 핏줄을 믿고 그런거여!』²⁰⁾

19) 김병익, 혼란과 허위 - 광기의 한 양상, 위의 책, p.562.

_____, 6.25와 한국 소설의 관점, 「두 열림을 향하여」, 도서출판 솔, 1991, p.180.

김병익은 여기서 작중 인물들의 귀향의식은 삶의 의지를 새로이 찾는데 있으며, 나아가 조상 혹은 민족의 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0) 전상국, 맥, 「우상의 눈물」, 민음사, 1980, p.231.

그러나 그들의 뿌리 내리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는 것이다. 장거리에서 만난 청년의 한 맺힌 말에서나 마을의 젊은 총들이 상여메기를 거부하는 태도에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것이다.

『최만배, 당신이 최만배지? 이보라구, 내가 왜 이 모양 이 꼬락서니가 된 줄 아오? 당신이 울 아버지질 인민군에 끌어낸 거 잊진 않았을 거요! 당신 덕분에 난 유복자가 된거구 ……」²¹⁾

이날 저녁 아버지는 마을 노인들이 탑골 박씨네집 마당에서 내 조부모의 면례장사 준비로 떠들석한 틈을 타 이흠들이 소주 한 병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나 아버지가 더 엉망으로 술을 들이키기 시작한 것은 마을의 젊은 총들이 상여메기를 거부해 온 뒤부터였다. 그 젊은이들 기세에 눌렸음인지 꽤 나이든 축들도 많은 일을 버리고 슬금슬금 꿈무늬를 뺐다.²²⁾

그런데 나중에는 주인공 <나>의 외삼촌 두 사람이 나타나 <내>게 손을 내밀게 되는데 고향에서의 화해는 일단 출발점을 찾은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아버지의 죄 많은 과거와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실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조상과 아버지라는 가족의 뿌리에 접목된다. 곧 뒤틀리고 훼손이 심한 부권을 회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입영(入營)을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완전한 뿌리내리기는 다소 유보되고 있는 형편이다.

3) 「하늘 아래 그 자리」의 경우

전상국의 이 작품은 우리의 전통적인 풍수지리 사상이 잘 반영된 것으로 명당 자리를 둘러싸고 하암리의 양반부락과 상암리의 상민부락의 해묵은 싸움을 그려내고 있다. 조상의 뼈를 명당에 묻어야 자손이 대대로 번창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뒤틀린 자리에 얽힌 기복신앙(祈福信仰)과 연결되고 있다.

육손이 마필구 노인은 18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전신이 마비되어 눈만 살아있던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망 즉 하암리 김씨 문중의 산 은장봉 명당에 조상의 뼈를 묻기 위해 귀향한다. 이 노인과 우연히 만나 동행이 되는 <나>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할아버지가 돌아가 묻히고 싶어하는 고향의 의

21) 전상국, 위의책, p.236.

22) 전상국, 위의책, p.237.

미를 새기기 위해 귀향하는 길이었다. <나>는 국회의원 아들로서 이 두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비교적 공정하게 보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은 하암리 김씨 문중의 산지기였던 육손이 노인이 하암리 마을에서 쫓겨난 이유에 대한 대목이다.

그가 증조할아버지의 뼈와, 아버지의 그것을 돌산 기슭에서 파내어 그들이 것처럼 묻히고 싶어한 은장봉 그 언덕 배기애다 암장을 한 것은 결코 김씨 문중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들 하암리 김씨 문중이 말하는 것처럼 그곳에 뼈를 묻어 김씨 문중의 지맥을 끊으려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가 그 은장봉 골짜기 언덕배기애다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뼈를 묻은 것은 산자리에 눈이 트인 한 범부의 욕심이었던 것이다.²³⁾

위의 소설 대목이 시사해 주는 바는 명당 자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집념이며 명당 자리를 차지함으로서 자기 종족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전통적인 세계관이다.

그러나 18년간의 옥살이를 마친 마필구 노인은 왜 귀향하는가가 이 작품의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고향이란 자신의 핏줄이 있을 때 귀향의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그를 마지막으로 면회온 아내의 말에서 아들 익수가 고향에 없음을 알면서도 귀향한 것이다. 하지만 마필구 노인의 귀향에 대한 해답은 다음의 사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제에기랄, 기껏 옥살일 때우고 예까지 와 죽다니!」

그 혼잣소릴 다른 목소리가 받았다.

「죽으려 예까지 온 걸세.」

..... 중 략

김순경이 몸을 굽혀 육손이 노인의 무릎 꿇고 엎드린 가슴께를 손가락질했다. 그 노인이 뭔가 가슴에 꿰어안고 있는 게 있었다. 나는 비닐 보자기에 싸인 길쭉한 것들을 잠시 훑어 보았다. 뼈로구나!²⁴⁾

마필구 노인의 귀향은 “жат나무 다보록 우거진 그 골짜기의 위쪽 성역처럼 잘 가꾸어 놓은”명당자리에 조상의 뼈를 안고 죽음으로서 조상의 소망을 성

23) 전상국, 「하늘 아래 그 자리」, 문학과 지성사, 1979, p.256.

24) 전상국, 위의책, pp.304 ~ 306.

취시키기 위해서다. 그의 죽음은 <나>의 말처럼 “죽음 자체를 하나의 방법으로 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필구 노인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로 압축된다. 첫째, 조상의 숙원이었던 은장봉 명당에 조상의 뼈를 묻게 되어 왕성한 생명력의 서기를 예감할 수 있는 일이고 둘째, 대립해 왔던 두 계층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일로써다. 마필구 노인의 이러한 죽음은 그의 아들 익수가 어딘가에서 틀림없이 왕성한 생명력을 회복해서 근원적 삶의 뿌리를 강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그동안 끊겼던 핏줄이 다시 연결됨으로서 부권은 회복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상국의 작품에서의 귀향은 구원 의식과 부권 회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가 고향의식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외연적인 면에서나 내포적인 면에서도 “팅반델롱의 여정”²⁵⁾을 밟고 있다고 본다.

IV. 맺는말

전상국의 소설들은 거의 전부가 6.25소재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훼손된 민족의 혈맥을 복원하는 길은 우리의 전통이 살아있는 고향으로 회귀함으로써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원초적인 생명력을 회생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연구한 세 작품인 「동행」, 「맥」, 「하늘 아래 그 자리」는 그의 전 작품중에 귀향 의지와 부권 회복의 내용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었다. “여름난리”는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공산당에 부역했다는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된다. 그로 인해 어머니의 정조는 유린되어 가족의 유대는 끊겨 버리는 경우는 상징성이 매우 강하다.

작품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귀향에 집착하는 것은 뿌리 찾기이며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린 아버지 혹은 조상을 떠올리고 힘의 근원으로서

25) 김영기, 고향의식의 생성적 묵시, 『바람난 마을』, 창작문화사, 1977, p.377.

이명재, 정신적 외상과 귀소의지, <현대문학>, 1980, 1, p.331.

김종희, 분단 시대의 삶과 화해의 지평, 『경희 어문학』, 제 7집, 1986, p.74.

의 아버지를 인식함으로써 본질적인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상국의 문학적 성격을 부계문학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의 작품속에서의 아버지는 하나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기도 하다.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어 사람들을 살해하고 고향에서 도망치거나 감옥생활을 한 주인공들이 돌아와서 과거의 죄과를 뉘우치고 세계 질서 속으로 편입되게 하는 공간은 고향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끝으로 필자는 본고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전상국의 작품들이 그가 말한대로 이데올로기로 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에서 발상되었다지만 탈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강했다고 본다. 이데올로기 문제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지 그 본질에는 크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문제는 회피한 채 천대기들이 자기들을 구박한 사람들에게 원한을 갚는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서다.

둘째, 과거의 죄 때문에 고향을 등졌던 사람들이 귀향하여 우리의 전통적 풍속에 복귀하면서 자아를 되찾고 화해의 질서 속에서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내용은 자칫하면 전근대적이고 퇴영적인 사회로의 복귀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겪은 6.25의 참담한 비극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분단 문학은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족 통일의 의지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셋째, 전상국 작품들의 도식성 문제다. 그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6.25 소재와 귀향의지는 거의 똑 같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점도 없진 않지만 그가 벗어나야 될 취약점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작가에게 거는 기대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이후에도 민족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작품을 생산하여 민족 통일의 전망을 밝히는데 있는 것이다.